



불편하고 귀찮은 캠핑, 그래도 떠나는 이유



조 준 원
예산회계팀 팀장

바짝 졸을 당겨본다. 팽팽해진 졸 끝에 연결된 천이 탕탕하게 퍼진다. 다립질한 마냥 매끈해진 타프(그늘막)에 비로소 입가에 미소를 그리곤 한다. 축 처진 타프며 텐트는 마치 중년의 뺏살 같아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서리 쪽의 위치를 이리저리 바꿔가며 연신 망치질을 해댄다.

캠핑은 자연에 집을 짓는 일이며 자연과 소통하는 것이라지만 사실 다닥다닥 붙어 지내야 하는 요즘 캠핑장 환경은 마치 아파트 같아 고즈넉한 자연을 느끼기 쉽지 않다. 자연 속에 과묵한 듯한 느낌을 주던 캠핑장이 어느새 나무그늘 하나 없이 텐트를 양쪽에 일렬로 쭉 들어서게 한 인공적인 곳으로 변하고 있다. 더 많은 캠핑족을 수용하기 위한 상술이 침투한 흔적이다.

그래도 떠나야만 할 것 같다. 겨울에도 난로까지 신고 주말을 기다릴 정도로 제대로 캠핑에 빠진 듯 싶다.

머리가 커진 이후 자기소개를 해야 할 때면 취미를 뭐라 해야 할지 늘 고심이었다. 당구나 바둑, 장기로 대표되는 잡기는 나오는 거리가 멀었고 뭐 하나 쉽게 심취하지 못하는 심심해도 너~무 심심한 성격으로 살아온 탓에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천장이 당구대로 보이는 느낌을 알지 못하고, 일 년에 700만 이간다는 야구장도 아직 구경 못했으며, 우산을 잡으면 왜 스윙 자세가 나오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나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캠핑장이 전국에 1,000여 개, 캠핑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한다. 대한민국은 갑자기 캠핑 공화국으로 변모했고 나도 한 몫 거든 셈이다. 대체 왜 떠나려는 걸까?

사실 캠핑은 불편하다.

깨끗한 화장실과 샤워실에 온수도 잘 나오는 시설을 갖

춘 캠핑장도 적지 않지만, 씻고 자고 볼 일 보는데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불편함을 포용하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 아무리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있어도 집보다는 10배 이상 먼 거리를 신발 신고 왔다갔다 해야 한다. 겨울 캠핑을 즐기는 캠퍼들에게 맥주는 선호 받지 못하는 주종이다. 왜? 맥주는 다른 술보다 화장실 가는 횟수를 늘리기 때문이다. 또 웬만히 깔끔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면도구를 들고 씻으러 왔다갔다 하지 않는다. 우리 가족? 하루 밤 정도는 간단히 양치질만으로 잠자리에 든다.

또한 캠핑은 귀찮다.



▲ 초등학교 6학년 딸과 함께

캠핑 사이트를 구축하고 정리하는 데에 각각 족히 1시간 30분 이상 걸린다. 또 하나의 집을 짓고 즐기기 위한 짐은 생각보다 많아 이를 빠짐없이 챙기고, 침낭이나 매트도 잘 말려 수납하는 것도 일이다. 화롯대 옆에 앉아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며 나누는 딸내미와의 수다는 다음날 화롯대를 청소하고 치우는 수고를 감내해야 맛볼 수 있다.

그래도 떠나고 싶다.

조금은 귀찮고 불편해도, 캠핑은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운 술자리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별적 소통을 위한 자리이다. 요리도, 설거지도, 청소도 그래서 즐겁다. 앵겔지수가 높은 캠핑을 즐기는 우리 가족은 푸짐한 음식 앞에 다 같이 수다쟁이가 되고, 보드게임에 정신을 속 빼 놓기도 한다. 해먹(그물침대)에서 즐기는 낮잠이나 가을 낙엽을 태우는 불장난, 텐트를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에 잠을 청하는 우중 캠핑과 다음날 아침, 가족들과 손을 잡고 나서는 산책은 덤이다. 🍂